

K-J 프로축구 '별들의 전쟁'

(한국 - 일본)

인천서 오늘밤 조모컵… 청소년대표 승전보 이어 형들도 반드시 승리

K-리그 올스타들이 '형'의 자존심을 걸고 조모컵 2009에 출격한다.

차범근 감독(시진)이 이끄는 K-리그 올스타팀이 8일 오후 7시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 한·일의 자존심을 걸고 일본 J-리그 올스타팀과 조모컵 2009를 치른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었던 제1회 대회에서는 K-리그 올스타가 1골 1도움을 기록한 최성국(광주)의 활약 속에 3-1로 승리했었다. K-리그 올스타들은 안방에서 치르게 된 2회 대회를 맞아 승리를 거두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K-리그 올스타들은 한·일전 승리를 통해 '형'의 자존심도 지켜야 한다.

20세 이하(U-20) 청소년 대표팀이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수원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 폴리그 최종 3차전에서 속적 일본을 꺾고 2005년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최정현(오이타)과 이승렬(서울)의 득점포에 힘입어 2-1로 승리하며 '아우'들의 힘을 과시했다.

'아우'들의 한·일전 승전보에 '형' K-리그

올스타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동국(전북 현대)과 최성국(광주 상무)에게는 '미스터 올스타'로서의 명예까지 걸린 대회라 각오가 남다르다.

이동국과 최성국은 각각 올 시즌 K-리그 정규리그에서 14골과 7골을 터트리는 등 팀의 핵심 선수로 맹활약하며 올스타에 선정됐다. 이동국은 8차례 K-리그 올스타로 나서 9골3도움을 기록하며 세 차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최성국은 성남 일화 유니폼을 입고 있던 지난해 제1회 조모컵서 최우수 선수에 등극



하며 오랜만에 '리를 미라도나'의 면모를 과시하는 등 두 선수는 올스타와 인연이 깊다.

축구 스타들의 축제 한마당이지만 한·일 양국의 이름이 걸린 만큼 조모컵은 별들의 전쟁이 되고 있다. 양팀은 합숙훈련까지 하면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형의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K-리그 올스타와 아우의 빛을 빛기 위해 전의를 다지고 있는 J-리그 올스타의 한판 대결이 주말 녹색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은선 여성 산악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예약

경쟁자 칼텐브루너 K2 포기



가운데 1개봉만 남긴 오씨가 히말라야 8천m 14좌 등정이라는 사상 초유 기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오씨가

오르지 못한 8천

m 봉우리는 안나푸르나(8천91m)가 유일하다. 오씨는 이달 중순 귀국한 뒤 안나푸르나 등정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씨는 올해내로 14좌 완등을 결정짓겠다는 계획인 만큼 안나푸르나 등정을 위한 출국에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씨는 국내 여성산악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현지오씨가 안나푸르나 등정 도중 실종된 지 10주년을 맞아 올해 9, 10월에 고미영씨 및 여성산악회원들과 함께 안나푸르나봉을 등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달에는 안나푸르나로 떠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봉황대기 4강

제물포고에 5대3 역전승

광주일고가 제물포고를 꺾고 봉황대기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7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제39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 제물포고와의 8강 경기에서 5-3의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합류했다.

2사 만루에서 3루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제물포고가 먼저 2점을 뽑았다. 0-2로 뒤진 4회초 광주일고가 김요셉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한 뒤 5·6·7회 각각 1점씩을 뽑으며 4-2로 승부를 뒤집었다.

7회말 제물포고가 1점을 더하자 8회 광주

일고가 박종호와 이주호의 연속 2루타를 끌어 1점을 도망갔다.

제물포고가 9회말 선두타자 정효원의 2루타를 앞세워 최후의 반격을 펼치자 광주일고가 투수 유창식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파울 플라이와 볼넷으로 1사 1·2루. 박장원의 땅볼을 잡은 유경수 강민국의 3루승부가 성공하면서 2사 1·2루, 3번 최원준이 내야 땅볼로 물려나며 경기가 마무리 됐다.

광주일고는 8일 오후 3시30분 올 시즌 청룡기 우승팀 신일고와 결승 진출을 다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부동

▲박상훈씨 별세 경·경국(드림랜드 부감)씨 부친상=발인 9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515-4488

▲민정선씨 별세 김형도·종도·상은 씨 모친상=발인 9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000

▲정중연씨 별세 만후·관후·양후·국

희·찬희씨 부친상=발인 8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000

▲최병암씨 별세 기열(산림조합중앙회 팀장)씨 부친상=발인 8일(토) 영암성심장례식장. 061-472-5544. ▲조연식씨 별세 민호·진영·히영씨 부친상=발인 8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정기암씨 별세 민호(금호상조 대표)·철호·형호·윤호·재호씨 부친상=발인 8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한국농구, 약체 스리랑카 제압

한국이 7일 중국 텐진시 텐진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예선 A조 2차전에서 약체 스리랑카를 122-54로 제압하고 2연승을 달렸다. 한국 농구대표팀 하승진(오른쪽)이 스리랑카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에 앞서 리바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BS

노컷뉴스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라인: 02-2077-8555

RADIO

라디오 채널

기독교방송연합회

CBS 솔로전체



060-600-1031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